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51장 다같이

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후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3.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4.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12:9-15 인도자

-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설 교 “공감능력”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감능력”

(로마서 12:9-15)

요즘 TV에는 관찰 예능이 유행이다. 인기 있는 고정 출연자는 화려한 외모나 입담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의 형편이나 마음을 읽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화려한(?) 감성의 소유자다. 일명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 시청자들은 주인공과 일체감을 느낀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까닭이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는 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뉴런’(거울 신경세포)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뇌 속에 ‘거울 뉴런’을 심어줘서 타인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게 하셨다. 한때 우리 사회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통이 아니라 공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에 로마서 12장은 우리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권고한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교리적인 책으로 본다. 바울의 성격처럼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교하고 논리적이다. 그런데 12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정돈되지 않고 산만하다고 지적한다. 일정한 주제 없이 이것저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이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모자이크처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을 교리적 결론 대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문안으로 끝낸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죄를 깊이 공감해 주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가치와 의미와 경제성을 계산하고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사람을 붙잡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실 때 그의 고통과 연약함에 대해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셨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현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이다.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다. 사람은 많고 기회가 적은 나라인지라 다툼이 심하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패배자가 되는 험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양보가 없고 경쟁은 치열하다. 내 것만 집중하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구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당부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칙은 긍휼이다. ▶둘째는 죄 사함이다. 죄인인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욕이 고백했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회개하나이다 (욥 45:5, 6).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있는지 자성해 보라.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그 고통이 온몸에 느껴지는 것처럼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영적 나병에 걸린 것과 진배없다. 우리 교회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감 능력’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